

“영해를 어떻게 마무리 할까?”

(실전 518)

“사랑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

2025년 포어

“내 개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2)

사랑의 5대 강령: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다음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첫째로 감사**, **그리고 둘째로 감사**,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사의 영이 충만한 자였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감사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디디멜은 조서에 영이 도장이 찍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그는 에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되 감사하며 기도하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단 6:10). 오늘 본문도 법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던 법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통치하시고 디디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엔 판타’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모든 행위의 상황’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법사의 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이 법사 안에서는 단 한 순간도 무언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디디멜이라고 감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반드시기 이루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감사는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사에 감사하라고 강한 명령함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합치는 않지만, 그래서 이 감사 중심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법사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뿌리와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는 법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울의 신학은 **En Christo**, 예수 안에서, 그는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면 그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법사의 감사였습니다. 배가 고프도 음식이 되지 않기도 은혜로 축만 감사를 드렸습니다. 공양을 맞고 불의하게 매를 맞아도 그리고 강요에 간혹도 단두대에서 순교의 찬미가 터지라도 그는 예수 안에서 법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법사의 의미도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바울의 인생에 있음은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법사의 주인공은 BC와 AD 31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History는 늘 그래서 His-story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을 함께 하는 스토리로 생경해서 감사는 자들을 통해 만들어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한 해에는 법사를 살아오신과 같이 나누고 기쁨으로 나누었습니까? 생경한 1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인 이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은 애용하시니 너희가 같이 일하여 너희를 안으시라 이것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사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서 영생을 크게 벌려서서 피를 흘리신분의 손이십니다. 지난 해 해 동안 우리 모두의 그 어떤 영와 해도 주님은 대신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벌려 우리 모두를 안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사 할 일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견어와 주시고 나의 모든 법사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길 그 허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은혜스럽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누정의 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전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후 12시
글로벌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리브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종교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세나리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아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유치부	창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등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고등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리브미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 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년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허스패닉 이호성 목사 (646)549-6043
영아회 중화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대니엘 바오넷 목사 (201)927-0220
행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골 투글목사 (646)467-2675
양육 옥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지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가족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시나이지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신범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체 기도교과TV(타인워너 케이블 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반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예행상)

신년 감사 예배

2025년 1월 5일

1부 예배 8:00am | 2부 예배 10:00am

드림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글로벌 워십 인도: 강영준 목사

3부 예배 12:00pm

블레싱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신앙교백	사도신경
*기원 Invocation	인도자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1번 “시편(Psalms) 11편”	기도	권소라 집사
*신앙교백 Creed/Nicene Creed	사도신경	공동체 속죄 영성	
찬송 Hymn	새550장(통246) “지은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Hail to the brightness of Zion's dard Morning” 김준연 찬로 (Elder Joan Wyo Kim)	성경봉독	갈 5:22-23 약 1:4
기도	시편(Psalms) 231	*봉헌	“나 무엇만도 주님을” 최순성 목사
*봉헌 Prayer	새213장(통 348) “191세명 드리니”(1,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성고	“영광의 열매: 인내” 최순성 목사
*찬송 Scripture	클로리아 찬양대 “영화물도다”	찬양	“온전케 되리라”
성고 Creed/Nicene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한해”	축도	최순성 목사
찬송 Hymn	새589장(통431) “내 길 길다기도록”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축도 Benediction	김학현 목사		
*공동체 속죄 Announcements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서 / Stand for all)